

경제

연탄 86원 ↑ LPG 92원 ↑ 등유 50원 ↑

에너지價 줄줄이 인상 서민가계 주름

지자체·유통업체선 저소득층 연탄 기부 나서

연탄, LPG, 실내·보일러 등유 등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이 지역 저소득층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장당 403원인 연탄 가격이 최근 장당 489원으로 뛰었으며, 가스업체들도 이달부터 LPG나 부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실내·보일러 등유 역시 지난달 둘째 주부터 l 당 각각 50.47원, 43.54원이 급등하는 등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연탄은 연탄 가격 현실화 명목으

로, 나머지 연료들은 해의 조달 가격 인상 등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는 당장 겨울을 지내야 할 서민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탄 100장으로 한 달을 지낸다는 김모(43·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지난해 겨울을 지내며 16만원 가량 들었으나 올해는 20만원을 웃돌 것 같다"며 "물가가 오르는데 연탄가까지 대폭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탄업계는 이달부터 공장도가격을 기존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이상 인상했다. 이로 인해 소비

자가격은 1장에 489원으로, 기존 403원보다 무려 86원이나 올랐으며,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탄가스나 도시가스, 등유 등도 당분간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가스는 프로판가스 가격을 kg당 832.08원에서 924.17원으로, 부탄가스는 kg당 1천226.46원에서 1천318.55원(l 당 770원)으로, E1의 경우 프로판가스는 kg당 832원에서 925원으로, 부탄가스는 1천226원에서 1천319원(l 당 770원)으로 각각 올리는 등 업체들이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 등이 연탄을 구하지 못하는 저

소득층을 위한 연탄 기부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11일 독거노인 50가구에 1만장의 연탄을 배달했으며, 광주시는 16일 저소득층 2천568가구에 가구당 연탄 300장씩 총 77만400장을 살 수 있도록 쿠폰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연탄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미치고 있다"며 "여건상 저소득층 모두에게 연탄 무료 쿠폰을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국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국세청 "미리 신청 서비스 받으세요"**

국세청은 16일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방법이 공인인증서 한 가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의 신청 인원은 2007년 75만8천명에서 지난해 330만3천명으로 435.7% 증가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

득금액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시적인 과부하를 막으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팩스 전용화선도 30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올해의 경우 1월15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보름 만에 동의 신청자의 75.4%가 몰리기도 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이달부터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光銀 등 18곳 미소금융 2,555억 기부

**2012년까지 저신용·영세업자 자활 지원**

광주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이 2012년까지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등을 위해 미소금융재단에 2천555억원을 기부한다. 1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광주은행 등 18개 은행과 미소금융재단이 기부 협

정식을 갖고 4년간 2천555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사진)

광주은행은 올해 9억원, 2010년 11억원, 2011년 9억원, 2012년 9억원 등 총 32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처리기금 조여 재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SC

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은 자체 자금으로 기부한다. 금융권은 또 앞으로 10년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7천억원의 휴먼에듀 펀드를 출연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 가운데 5년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휴먼에듀금을 출연해 설립된 '소액 시민금융재단'을 확대 개편해 설립한 것이다. 이 재단은 저신용·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서민·영세 자영업자에게 금융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현 은행 수준의 70% 수준까지 적용되면 연 0~3% 수준에서 사업자별로 약간 차등화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미소금융 사업에 동참하는 등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불산단 산업용지 35만㎡** (14만5천641㎡·4만4천4평), 신재생에 내지단지의 산업시설용지 5필지(21만1천121㎡·6만2천4평) 등 9필지(35만6천763㎡·10만8천평)다. 조선기자재단지에는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들어서며 신재생에너지 단지에는 태양광·풍력·조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문의 061-280-060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25일부터 분양**

전남개발공사는 16일 "대불국가산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오는 25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일대 대불산단 내 조선기자재단지의 산업시설용지 4필지

삼성생명 내년 상반기 상장한다

보험업계 1위 ... 생보사 지각변동 예고

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보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내년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요건 검토와 주가상입찰 제안서 발송 등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세계 15위 생보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차 제

권단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채권 환수 소송과 관련, 삼성 측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해 채무를 갚으려고 상장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1999년 6월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견회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 원에 채권단으로 매각로 제공했다.

삼성생명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서 빚을 갚고, 부족하면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책임자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총 4조7천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이 전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상장 추진은 내년 중에 상장 목표를 세운 대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캐리어 노조, 정리 해고 대책위 구성

캐리어(여) 노조가 사측의 정리해고 대상자 통보 및 휴무 조치에 반발, '정리해고 대책위원회(가칭)'를 꾸리는 등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캐리어 노조는 16일 광대대책위원회를 열고 회사의 정리해고 예비 대상자 명단 통보 등에 따른 대응책 및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노조는 이날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47명의 노조원이 정리해고 예비

대상자로 통보받는데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야 농성 및 상경 투쟁 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특히 공장 가동률이 10% 정도에 머물러 실용성 있는 투쟁 수단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 급속노조와 연계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시민 홍보전을 벌이는 등 선전전에 치중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조는 이에따라 17일부터 선전단을 꾸려 서울 지역에서 역과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달 생산자를 중심으로 280명을 정리하는 내용의 대규모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뒤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3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로로부터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받는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의류 PB '여우' 내년 출시**

전국상인연합회는 16일 전통시장용 의류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인 '여우'를 발표했다. 25~35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여우' 브랜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통시장 내 신라FnC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에브리마켓' 등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택진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PB 개발은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전통시장의 주 고객은 여성·주부가 많아 첫 의류 공동브랜드를 여성 의류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여우' 브랜드 제품의 유통망을 대형 전통시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외에도 기타 의류와 농산물, 공산품 등 제품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박영진 이사 0621367-3005 H.P 011-642-264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안구	철곡동	159/48	199㎡	5천여	5천여
	철곡동	159/48	391㎡	2만1천	2만1천
	철곡동	119/38	191㎡	7천1천	7천1천
	철곡동	108/33	8천	5천여	5천여
남구	송정동	112/34	192㎡	8천4백	8천4백
	송정동	112/34	191㎡	8천	8천
	송정동	106/32	9천4백	6천5백	6천5백
	송정동	218/66	492㎡	299944원	299944원
북구	송정동	159/48	391㎡	2만1천	2만1천
	송정동	179/54	7천5백	1만2천	1만2천
	송정동	105/32	192㎡	5천1백	5천1백
	송정동	188/57	392㎡	29389원	29389원
서구	송정동	105/31	192㎡	7천5백	7천5백
	송정동	167/49	292㎡	2929원	2929원
	송정동	202/61	191㎡	8천5백	8천5백
	송정동	145/44	293㎡	194611원	194611원
동구	송정동	109/33	192㎡	1929원	1929원
	송정동	192/34	391㎡	291456원	291456원
	송정동	154/48	291㎡	194727원	194727원
	송정동	181/55	491	2941원	2941원